

4대강 예산 삭감도 못하고 민생·복지도 못챙겨

민주당, 명분도 실리도 다 잃었다

예산안 강행처리 철저 대비·전략적 접근 아쉬워  
손학규 대표 리더십 상치... 일부선 책임론 제기도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2011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해서 거대 여당의 '오만과 폭거'라는 지적을 하면서도 민주당이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느슨하게 대응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2년 동안 새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보다 철저한 대비를 하고 여권과의 물밑 대화에도 적극 나서는 등 보다 전략적 접근이 요구됐다는 지적이다. 이번 예산안마저 한나라당이 단독 강행처리한다면 의회지 총사퇴 등을 결고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결기를 보여야 했는데 '실마 다시 강행처리를 하겠느냐'며 느슨하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의 저항도 과거 같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물밑 대화도 실패했다는 평가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 등 여권

핵심부와의 접촉을 통해 원만한 결과를 유도해야 했으나 '4대강 예산 70% 삭감'이라는 버거운 목표에 집착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4대강 예산도 삭감하지 못하고 민생 및 복지예산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무기력한 제1야당의 초라한 모습만 보이게 됐다. 특히,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가 예상됐다는 점에서 이를 막지 못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일각에서는 손 대표가 이번 예산 정국에서 별다른 전략적 대응을 하지 못했거나 '책임론'마저 제기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에 맞서 장외투쟁 카드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안보 정국이 이어지고 강우위가 찾아오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마디로 사면초가인 상황"이라며 "한나라당의 3년 연속 예산안 강행처리는 야당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의회지 총사퇴 등 초강경 대응밖에 길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대치했던 8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에게 항의하자 김무성 의원이 말리고 있다. 예산안은 결국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연합뉴스

못매맞은 시의회, 市와 새 갈등

■ 유급보좌관 무산 안팎

광주시, 삭감 예산 부활 안되자 '제동'

광주시의회가 무리하게 강행했던 기간제 근로 형태의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광주시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의원들 간 내분과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 우려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반대 여론 속에서도 1개월 사이 두 차례 유급보좌관제 도입 추진을 무리하게 강행한 광주시의회뿐만 아니라 애초 유급보좌관제 관련 예산을 동의해줄 것처럼 했다가 뒤늦게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광주시도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시의회의 사상 유례없는 새해 예산 삭감과 광주시의 유급보좌관 관련 예산 증액 반대로 인해 향후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도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 위상 추락... 책임론 대두> 유급보좌관제가 집행부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광주시의회의 명분과 실리도 찾지 못하고 여론의 비난만 거세게 맞은 채 체면을 깎아내렸다는 비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실상 현재 고공하고 있는 보좌관 비용을 줄여보겠다는 눈 앞의 이익만

추다가 출발한 지 5개월도 안 된 제6대 의회의 위상을 무참히 깎아내린 셈이다. 특히 권법 논란과 시기적절치 않게 문제가 있다는 유급보좌관 관련 예산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한데다 이례적으로 예정위에서 편법 예산을 편성하려 했다는 점, 유보 결정 후 1개월 만에 또다시 추진한 점 등은 앞으로 제6대 시의회임기 동안 나쁜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애초 추진했던 '의정서포터즈'(6억4000만원)도 아닌 '기간제 근로' 형태(3억5000만원)로까지 추진하려 하면서 더욱 체면을 깎아내렸다는 비난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유급보좌관제 도입 추진 과정에서 이를 주도하고 의원총회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겠다'고 밝힌 윤봉근 시의회의 의장과 윤 의장을 지지, 강행 의지를 밝힌 일부 상임위원들의 정치적인 타격은 물론 향후 거취와 행보에도 상당한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의회 내에서는 벌써 윤

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의 정치적 책임론과 광주시에 대한 시의회의 강경 대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강행에 반대 의견을 보였던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를 누군가 나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찬성의사를 보였던 의원들은 예산증액에 반대를 한 광주시에 대해 앞으로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도 비난 피하기 힘들 듯> 애초 광주시의회는 집행부 측이 사전에 유급보좌관 관련 예산 증액에 동의해줄기로 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부활하려는 집행부 측의 '미끼' 아나니는 끝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따라서 예결위는 이 같은 끝지 않은 시선을 피하기 위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83억여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이에 광주시가 반발해 관련 예산 증액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시의회의 '숙원'이었던 유급보좌관 도입은 끝난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광주시는 기간제 근로 형태의 유급보좌관 관련 예산 3억5000만원을 증액해주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시의원들은 "시가 시의회를 갖고 놀았다"라며 분개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농정 예산 60억 증액, 추경서 추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 예산심의 재개

농민단체 "정치적 야합"

농정 관련 예산 삭감에 반발해 내년도 예산심의를 거부한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농수산위)가 하루 만에 심의를 재개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는 8일 농림식품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재개했다. 농수산위는 일단 농정 예산 60억

5000만원가량을 증액하고, 내년 추경에서 추가 증액하기로 전남도와 협의가 이뤄짐에 따라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증액 대상 사업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28억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7억원)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10억원) ▲특화작목 경쟁력 제고사업(8억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7억5천만원)

등이다. 도의회는 9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남도의 증액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농수산위의 심의 거부로 우려됐던 예산 심의 일정 지연사태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내년도 농림식품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올해 9519억원보다 1423억원이나 줄어든 8096억원으로 제출해 농민단체 등은 예산 재편성을

요구하며 반발해왔다. 이에 도의회 농수산위는 7일 상임위 예산심사를 중단하고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농민단체는 이와 관련, 삭감액에 크게 못 미치는 증액에 심의 거부 입장을 철회한 도의회를 비난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농업예산 삭감에 대한 분노가 60억5000만원 증액으로 합의되고, 비경영 안전대책비 증액 요구도 5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슬그머니 합의됐다"며 "도의회가 큰 소리만 치다가 집행부와 아합한 데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연말 건배사는 '공명선거'로"

전남도선관위 모음집 발간

전남도 선관위는 연말연시 잦은 회식자리에서 선거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선거홍보 건배사 모음집-건배로 말하게요'라는 책자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도 선관위가 발간한 책자에는 선거홍보 건배사 25개를 포함해 즐거운 분위기 조성, 환영식, 송별회 및 회식 마무리 건배사 100여 개가 수록돼 있다. 눈에 띄는 건배사는 ▲오바마(오=오!~ 그대여!), 바=바보처럼 위법행위는 이젠 그만, 마=막(마)걸리 선거는 이젠 없습니까) ▲주전자(주=주인답게 신중히 고민해 전=전통성을 갖춘 인물과 정책을 선택하고, 자=자



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말자) ▲당나귀(당=당신과, 나=나의, 귀=귀중한 한 표 꼭 투표에 참여합시다) 등이 있다. 책자에는 22개 시·군 선관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추천한 맛집 80여 곳이 부록으로 수록돼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직원들이 선거홍보 건배사를 평소 실천한다면 일상에서의 홍보활동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라며 "유권자들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흡수·체화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친화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北, 백령도 동북방 북측해역에 포사격

북한군이 8일 오전 9시4분께 서해 백령도 동북방 북측 해역으로 포사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이날 "어제부터 북측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포성이 들렸다"면서 "오늘은 백령도 동북방 북측 해역으로 포사격을 한 것이 레이더에 관측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포탄의 탄착 지점을 분석하고 있지만 북방함계선(NLL) 이북의 북측 해역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포 사격을 통상적인 훈련으로 추정하면서도 그 의도를 정밀 분석 중이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백령도 동북방 북측해역에 수발의 포탄이 탄착돼 확인 중"이라며 "우리측에선 포섭도 청취되지 않을 정도로 먼 거리로 북한 해안에 가까운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서북도서에서 배치된 신형 대포병레이더 '아서'로 포격을 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남도한정식 "동감" (동의보감) 연말모임, 회갑연, 돌잔치 및 각종모임 대·소 연회장 및 주차장 완비. 예약 문의: 062-611-7533, 011-645-4588. 하남 콜롬버스 월드 1층

생각보다 좋은 비누 평미인. 평미인은 (사단) 아세아-태평양 자연 의과학 연구재단에서 제조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우리 물 속 70% 물과 외부에서 씻는 물을 동조시켜 피부통로를 열리게 하여 몸속의 필요없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나오게 하는 원리입니다. \* 주요성분: 특수 숙성한 식물성 유지, 살구씨 오일 및 분말, 100% 천연향 로즈마리, 천연신소재 HJ-1.2, 글리세린. \* 사용범위: 모든 환자의 전신 목욕, 유아목욕, 노인 냄새 제거,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잦은 화장을 하는 여성,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환자를 많이 다루는 사람,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 무좀, 습진, 비염), 치질로 고생하는 사람, 입냄새, 입술터짐, 이가 시리고 아픈사람, 농약을 다루는 사람의 목욕. 비누 사용시 유의사항: 5분간 2회 이상 비누 맛사지, 보관시 다른 비누와 따로 보관, 처음사용시 5분 2회 손 \* 발 맛사지 후 사용. 광주·전남·북 판매점/판매원 모집. 상담문의: 010-3231-3665

먹어야 해결된다. 여성 전용 먹는 탈모제품의 특징. 여성탈모, 무모, 이제 고민 끝! 그동안 남모르게 고민해오던 여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고 있어 화제이다. 여성의 탈모의 원인은 모낭의 영양결핍입니다. 남성의 탈모의 원인은 모낭위축입니다. 원인이 다르므로 탈모도 달라야겠죠? 모근에 영양공급이 바로고 강해서 해결될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먹는 방법입니다. 머리카락이 굵어지며 배꼽아래 체모가 풍성해진다. (통신판매신고증 제19-5301호) 대히트 오래~오래~ 신상품 룽~링. 남자의 발기능력은 자기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소하고, 빠르고, 힘이 없고, 남성의 3대 고민은 오래~오래~ 룽~링으로 개선하자. 자동으로 흔들어 주고 떨어뜨려 통링은 소프트하고 무게감이 없고 반영구적이며 위생적으로 탁월하여 여성으로부터도 호감을 받습니다. 생노병사 불노장생 책을 드립니다. 본 제품은 의욕이 아닙니다. 02-2068-4142 010-3518-8995 02-2068-4143 010-3611-8272

12월 4일 새롭게 OPEN 했습니다! 오실때만 2가씩만 4! 부킹성공 120% 최진희 12월중 출연예정 입장료 무료!! 롯데클라빅 김남전자상가 지하층 롯데백화점 후문쪽